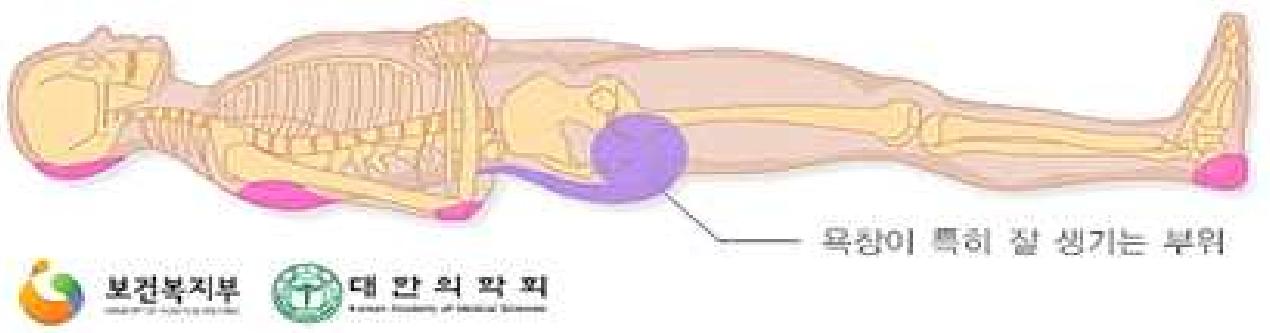
욕창예방 및 관리지침

1.욕창예방 및 관리지침의 목적

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, 일단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,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욕창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. 아울러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·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.

2.욕창의 정의

“욕창”이란 우리 몸의 특정 부위(주로 뼈의 돌출부)에 지속적 · 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괴사해 발생한 궤양을 말한다. 압박궤양이라고도 하며, 주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해온 환자, 특히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.



후두부// 어깨/ /견갑골// 팔꿈치// 꼬리뼈 주변// 발뒤꿈치

움직임이 떨어지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자세변경 없이 있을 때, 피부는 빨갛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어 피부껍질이 벗겨지며 계속 진행할 경우 썩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

3.욕창의 증상

① 붉은 피부 (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른다.)
②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,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
③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성 상처
④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있음(악취가 나는 삼출물)
⑤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(머리 뒷부분, 어깨 뒤, 팔꿈치, 엉덩이, 무릎,발뒤꿈치 등)
⑥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지지조직(건, 관절)에까지 침범,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 할 수도 있음

4.욕창의 단계별 증상 및 관리 및 치료법

1단계: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. 피부를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임. 피부에 열감 있음.

① 발적이 있는 부위의 마사지를 피한다.

② 실금을 사정하고 배뇨 훈련한다.
③ 정상피부를 마사지한다.
④ 필요하다면 습윤 크림을 공급한다.
⑤ 적절한 수분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.
⑥ 손상 받은 조직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한다.

2단계: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함

①1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한다.
② 상처를 보호하고 습윤 드레싱을 한다.
③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한다.
④ 욕창 예방 매트리스 및 자세변환용구를 적용한다.
⑤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,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.
⑥ 충분한 수분섭취와 영양을 공급한다.
⑦ 필요시 계약의사 및 협약병원의 도움을 받아 처치한다.

3단계: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조직 발생

① 1단계, 2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한다.
② 상처기저부의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습윤 드레싱을 한다.
③ 감염예방을 위해 상처를 세척하고 과다한 삼출물을 흡수한다.
④ 육아조직의 성장을 증진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한다.
⑤ 덮는 드레싱을 하고 상태에 따라 드레싱을 교환하며, 안쪽에 진물이 묻어있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.
⑥ 상처치유를 지연시키고 세균 성장의 매개물이 되는 괴사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.
⑦ 증상이 심할 경우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통해 패혈증 또는 심한 합병증을예방해야 한다.

4단계: 골과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

① 1단계, 2단계, 3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한다.
② 상처기저부위 습윤 환경을 제공하며 상처를 세척하고 감염을 예방한다.
③ 상처의 사강을 채우고 육아조직의 생성을 촉진한다.
④ 패혈증, 골수염 등의 치유 부전 상황 시 빠른 상처치유를 위해 병원에서 전문의

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.

5.욕창의 원인

1> 개인적 요인(질병)

①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는, 대 ·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,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노인에게서 주로 발생.
② 수급자에게 마비가 있는 경우(뇌졸중 등)
③ 신장염, 심장병 등으로 인해 부종이 있을 경우
④ 당뇨병 등으로 인해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
⑤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전신쇠약이 심할 경우(결핵, 만성질환 등)
⑥ 탈수가 심할 경우(피부 건조, 위장관질환 등)
⑦ 신체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받을 경우(골절환자, 석고붕대 적용)
⑧ 노화 (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혈액공급이 감소하고, 탄력성이 떨어지며, 피부 상피층이 얇아진다)
⑨ 개인위생을 소홀히 한 경우(지저분한 피부)
⑩ 변, 요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표피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피부 통합성을 파괴하고 감염을 일으킨다.

2> 환경적 요인

① 수급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생활하는 경우
② 의복 또는 침구류(이불)와의 마찰
③ 땀이나 대 · 소변으로 더러워진 의복, 침구류 또는 침상에 떨어진 음식물 · 각종 부스러기 등

6.욕창 예방법

① 급여제공 전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 감염을 예방한다.
② 장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.
③ 주기적인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(단, 상황에 따라 피부손상을 촉진 시킬 수 있음).
④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다.
⑤ 체위변경 또는 목욕, 기저귀 교환 시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.
⑥ 목욕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한다.
⑦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시킨다. 필요한 경우 자주 로션을 발라주며, 강한비누 또는 화장품 사용은 피한다.
⑧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쿠션, 매트리스, 침대 등을 사용한다.
⑨ 압박받는 부위에 배게, 패드 등을 대어 압박을 줄여준다.
⑩ 의복 또는 침구류는 주름이 없도록 하며, 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한다.
⑪ 잠옷, 이불 등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 · 소독시킨다.

⑫ 단백질,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, 설탕, 꿀, 달걀흰자 등의 음식은 피한다.
⑬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피부탄력성 및 피부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킨다.
⑭ 기저귀 또는 더러워진 의복 · 침구류는 바로 갈아준다.
⑮ 기관은 본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⑯ 기관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측정하고, 욕창예방 및 관리관련 자료를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제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.
⑰ 욕창발생위험이 높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특별히 관리한다.

7.욕창 발생 시 대처방법

1. 홍반이 있거나, 특정 부분 피부의 온도 · 조직의 단단한 정도가 타 부분과 차이가 있거나,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1단계로 볼 수 있다.
㉠ 일 1회 이상 생리식염수로 닦거나, 감염된 상처일 경우 소독하고 1% 미만의 베타딘으로 세척한다.
㉡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 해준다.

2. 홍반이 커지거나 피부가 벗겨지고, 딱딱해지거나 딱지 · 진물이 생긴 경우 2단계로 볼 수 있다.
㉠ 병원진단을 받거나,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처치한다.
㉡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,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.
㉢ 항생제는 필요한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한다.

3. 피부손상이 피하지방층까지 확대된 경우를 3단계로 볼 수 있다. 작은 구멍을 볼 수 있다.
㉠ 상처의 구멍에 탈지면을 넣고(구멍이 없을 경우 상처 위에 놓고) '옥소린액'으로 흠뻑 적신 후 10~20분이 지나면 탈지면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.
㉡ '메디폼'을 상처에 붙인다. 기본 2~3일마다 한 번씩 교환하며, 안쪽에 진물이묻어있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.
㉢ 증상이 심할 경우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패혈증 또는 심한 합병증을예방해야 한다.

4. 욕창이 근육은 물론 뼈까지 침범한 경우는 4단계이다. 아주 깊은 구멍에 지저분한 염증이 있다.
이 경우 욕창전문병원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.